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12. 30.(화), 15: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민조홍*, 문혜성, 민병원, 장원경, 안등용, 박서림, 전헌주, 한은주, 오숙환, 김정권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2	정연화, 이명경	

\* 의장

### 4. 안건

- 제1호의안: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새로운 직원 평의원 1명(안등용)이 위촉되었음으로 안내하고, 2024년 대학평의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 따라 이번 회의는 12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정연화, 이명경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10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다.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차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 6. 안건 자문 및 논의

#### 가. 자문사항

- 제1호의안: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 자문

- (1) 의장은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화의료원, 학교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전략기획팀 예산파트장)

- (2)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원 현황과 예산 산정 기준, 의장이 사전에 의료원에 요청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보고하다.
- (3) 김정권 평의원은 2024년에 의료원이 타 병원보다 실적이 좋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4)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은 전공의 사태로 3월 실적이 떨어졌으나 4월부터 PA 전담간호사 시스템이 잘 정착되었고, 특성화 병원들이 전국의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았으며, 서울병원은 전공의 수가 적어 전공의 사태 영향을 덜 받았고, 타 대학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의 방문이 늘어 양 병원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하다.
- (5) 문혜성 평의원은 2025학년도 예산안에서 목동병원의 수입 증가율이 너무 높게 측정된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 (6) 전략기획본부장은 2025학년도 예산은 2024년도 추경 대비 증가율로 기준치가 달라졌음을 설명하다.
- (7) 전략기획본부장이 의료원의 부채 규모, 상환 및 잔여 부채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무팀장이 추가로 설명하다.
- (8) 장원경 평의원은 작년에 은행 부채 원금 상환을 유예하였다고 들어 걱정된다고 언급하고, 은행 부채를 동일 금액으로 상환하는지, 점차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인지 질문하다.
- (9) 문혜성 평의원은 지난 4월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시 수익이 클 때 많이 상환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상환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답변 받았다고 발언하다.
- (10) 재무팀장이 의료원 부채 상환계획은 교육부에 균등 상환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2022년도까지 상환을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도부터 은행과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에 교육부 허가를 받아 1년 6개월의 상환 연장을 받았으며 기존 2043년 상환 만기 변동은 없다고 설명하고, 의료원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금을 조기 상환 종료하고 이자도 낮출 수 있음을 설명하다.
- (11) 전략기획본부장이 특성화 병원에 대하여 설명하다.
- (12)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별로 PA 간호사 숫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13) 전략기획본부장은 응급 수술이 많은 대동맥혈관병원, 뇌혈관병원에 PA 인력이 많다고 답변하다.
- (14) 김정권 평의원은 월평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특성화 병원을 제외한 곳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15)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 중 의료수가가 높은 병원이 있고, 중환자실 케어가 있어 수입이 높게 잡히므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다.

- (16)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결산에서는 비용분석 자료를 보고하였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사전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요청한 1인당 인건비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17) 문혜성 평의원은 여성암병원과 대동맥혈관병원의 월평균 의료수익이 같은데 PA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의과대학 타 교원에 비해 특정 특성화 병원 교수 연봉이 매우 높다는 말이 있어 인건비 대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였던 것이라고 말한다.
- (18) 전략기획본부장은 특성화 병원의 인건비와 다른 병원의 인건비를 1인당 비교해달라는 요청 자료는 여러 이유로 분석자료를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한다.
- (19)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원 교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설명하다.
- (20) 의장은 의료원의 수익 증가에 따라 당직비 인상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질문하다.
- (21)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직비가 증액되었음을 설명하고, 성과급 재원도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22) 장원경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병원의 재원이 특성화 병원에 집중된 결과이고, 성과급이 특성화 병원에 집중되어 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23) 전략기획본부장은 성과급은 특성화 병원에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원칙에 의해 동일하게 지급됨을 설명하다.
- (24) 전략기획팀장이 2024학년도 추경예산과 2025학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다.
- (25) 김정권 평의원이 추경에서 재료비 중 약품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를 질문하다.
- (26) 전략기획팀장이 수입이 증가하면 재료비도 증가하며 작년 물가 인상으로 약품비와 재료비의 인상폭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답변하다.
- (27) 전략기획본부장이 병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목동병원은 암환자가 많은데 암환자 약값이 비싸서 약품비가 높으며, 서울병원은 재료비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다.
- (28) 문혜성 평의원이 2025학년도 예산 중 의료외수익이 줄어든 이유를 질문하다.
- (29) 전략기획팀장이 내년에 중단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으며 특히 3차 병원으로 정부지원금이 많았던 목동병원이 서울병원보다 영향이 크다고 답변하다.
- (30) 문혜성 평의원이 전공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31) 전략기획팀장이 2025년 전공의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전공의 정원의 1/2이 복귀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 (32) 문혜성 평의원이 2025학년도 예산 중 목동병원 고정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를 문의하다.
- (33) 전략기획팀장은 혈액암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비로 고정자산이 상승했다고 답변하다.
- (34) 김정권 평의원이 혈액암병원 개원 시 인건비 증가가 있는지 문의하다.

- (35) 전략기획팀장이 기존 의료진으로 운영하고 의료진 총원은 적어 인건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36) 전략기획본부장이 목동병원 고정자산 증가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4인실만 참여 가능하여 5인실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중환자실 증설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다.
- (37) 문혜성 평의원이 2025학년도 예산안 중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하여 질문하다.
- (38) 전략기획팀장이 유동부채는 장비 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39) 문혜성 평의원이 유동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리스가 증가한다는 의미인지 질문하다.
- (40) 재무팀장이 4년 단위로 구매하면 고정부채로 잡혀 있다가 1년 안에 상환하면 유동부채로 변경되는 개념이어서 단순히 리스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부채에서 일부를 유동화시킨 개념이라고 설명하다.
- (41) 문혜성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유동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42) 재무팀장이 서울병원의 유동부채는 원금 상환 스케줄상 2025년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다.
- (43) 문혜성 평의원이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에 대해 예산서에 용어 설명을 적어주기를 요청하다.
- (44) 의장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학교 전입금이 맞는지 질의하고, 향후 예산서에 '전입금'으로 표시해 주기를 요청하다.
- (45) 문혜성 평의원이 특성화 병원별로 수입, 지출, 비용을 별도의 표로 만들어주기를 요청하다.
- (46) 재무팀장이 특성화 병원 수익과 인건비 자료는 계산이 가능하나, 관리운영비는 공통 비용이므로 특성화 병원별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다.
- (47) 문혜성 평의원이 특성화 병원의 예산 대비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므로 수익과 인건비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말하다.
- (48) 의장이 의료원 내 특성화 병원의 인력 배치, 인센티브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구성원들로부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49) 전략기획본부장이 인센티브는 다르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 (50) 문혜성 평의원이 별도 재원을 투자하여 특성화 병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향후 다른 특성화 병원 건립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51)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의 비용 계산이 어렵고 인건비 공개도 어렵다면,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새로운 특성화 병원 건립 관련 예산이 적절한지 심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 (52) 전략기획본부장이 단위 병원별로 모든 항목 계산은 어렵고, 수익과 인건비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다.

- (53) 김정권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의 언론 노출로 병원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베네핏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54) 김정권 평의원은 향후 의장이 의료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하다.
- (55) 의장이 의료원, 문혜성 평의원과 의논해 보겠다고 말한다.
- (56) 장원경 평의원이 목동병원 은행 대출에 대하여 질문하다.
- (57) 재무팀장이 대학병원은 은행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수익이 급감하였을 때 타 병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일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제 차입한 것은 아니고 자금 부족 시를 대비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코로나 시기 은행과 맺은 차입 중 일시 차입금액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고, 계약만 맺고 실제 차입하지 않은 금액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다.
- (58) 의장이 작년 대비 증가한 병원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문의하다.
- (59) 재무팀장이 의료원은 비영리 기업으로 성과급을 바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다.
- (60) 의장은 의료원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 (61) 기획처장은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다.
- (62) 김정권 평의원은 추경예산안 중 관리운영비가 큰 비율로 늘어난 이유를 질문하다.
- (63)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코레일에서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던 과선교 5년분의 사용료 71억원을 청구하여서 금액을 선납하였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고, 여러 건축물 수선들이 합해져서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레일 과선교 금액을 제외하면 2024학년도 본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다.
- (64) 김정권 평의원이 코레일과 소송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다.
- (65) 기획처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므로 청구된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코레일과 학교 간 다툼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66) 김정권 평의원은 코레일 부지 사용료 지급 내용이 예산 자료에서 설명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교무회의 보고 시 이를 추가하는 것을 건의하다.
- (67) 의장은 학교 규모에 비하여 관리운영비 500억 지출이 과하지 않은지 타 학교와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질문하다.

- (68) 예산팀장이 학교마다 예산 집행 사정이 다르지만, 최근 물가인상으로 타교에서도 관리 운영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노후 건물에 대한 지출이 많은 상황이고, 전기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라 에너지비용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답변하다.
- (69) 의장은 기금 운용 상황을 문의하다.
- (70)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다.
- (71) 기획처장은 2025학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다.
- (72) 김정권 평의원은 2025학년도 예산안 인건비에 내년 임금 인상율을 얼마로 예상한 것인지 질문하다.
- (73)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통상 임금 인상은 5~6월에 단협에서 논의한 결과를 추경에 반영하므로, 현 예산안에는 호봉 인상, 교원 채용 및 퇴직 교원 수까지만 예상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 (74) 박서림 평의원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이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의대생 복학을 예상하여 수입이 증가한 것인지 질의하다.
- (75)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그렇다고 답변하다.
- (76) 박서림 평의원은 국고보조금 수입 중 교육부 수입이 2024학년도 추경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77)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교육부 사업 인센티브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해당 지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고 답변하다.
- (78) 박서림 평의원은 줄어든 금액이 우리 학교가 대체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 금액인지 질문하다.
- (79) 예산팀장이 내년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포물러사업비로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하다.
- (80) 민병원 평의원은 연구학생경비 항목을 설정하는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지 문의하다.
- (81) 예산팀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82) 장원경 평의원은 토지 구입예산 15억이 코레일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지, 다른 토지를 매입할 금액인지 질문하다.
- (83) 예산팀장이 서대문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5학년도에 오투기 어린이집 앞 경계 부위를 매입하기로 하여 편성하였다고 답변하다.
- (84) 의장은 총장 내정자와 새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는지 문의하다.
- (85) 기획처장이 총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예산안 수립 시에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하다.
- (86) 의장이 2025학년도 예산안은 새 집행부가 집행할 것인데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다.
- (87) 김정권 평의원은 학교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말하다.

- (88) 의장은 총장 내정자의 공약 중 임기 내 교원 급여 20% 인상을 언급하고, 본교 교원 급여 수준이 낮아 교원 채용이 결정된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 (89) 민병원 평의원이 집행부 교체로 Frontier 10-10 사업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질문하다.
- (90) 예산팀장이 예정된 연구 과제 종료에 다른 감소라고 말한다.
- (91) 의장은 본교 연구비 지원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말한다.
- (92) 예산팀장은 연구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 (93) 의장은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나. 심의사항

###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먼저,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의 전공 진입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5조 제5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학칙 제26조 제4항 관련으로 창업으로 인한 추가 휴학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며,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생리공결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평등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제40조 제4항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는 산업 수요와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탐색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전공을 도입하기 위해 학칙 제47조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는 건이고, 마지막은 인공지능대학 관련 건으로 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고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사학위명을 데이터사이언스학사에서 공학사로 변경하고, 2025학년도 학부 편제 조정 사항인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을 반영하는 건이라고 설명하다.
- (3) 간사는 이어서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첫 번째는 대학원위원회 심의 결과, 2025학년도부터 조형예술학부 융합미술치료학 세부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본 전공에만 적용되는 “융합미술치료학박사” 학위종별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특수대학원인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는 추가 취득 학점의 수를 6학점에서 5학점으로 조정하는 안이라고 설명하다.
- (4) 의장이 학칙 제40조 제4항 관련하여 다른 대학에도 생리공결제가 있는지 질문하다.

- (5) 박서림 평의원이 타 대학, 특히 여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내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 (6) 오숙환 평의원은 마이크로전공에 대하여 다른 대학도 있는지 문의하다.
- (7) 간사는 많은 연구 사업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타 대학도 많이 도입하였다고 말하다.
- (8) 김정권 평의원은 마이크로전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문하다.
- (9) 기획팀장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 중이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10) 의장이 마이크로전공의 의미와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 등을 자세하게 회의자료에 추가해 주기를 요청하다.
- (11) 장원경 평의원은 일부 학과는 마이크로전공 도입을 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다.
- (12) 김정권 평의원이 마이크로전공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다.
- (13) 간사가 마이크로전공은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하다.
- (14) 의장이 학칙 제5조 제5항과 제47조 제7항의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구가 ‘총장이 자의적으로 행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은지 질의하다.
- (15) 간사가 학칙시행세칙의 근거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16) 문혜성 의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고, 오숙환 평의원이 법률 자문을 받아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다.
- (17) 의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해당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을 규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다.
- (18) 문혜성 평의원은 미술치료학이 전문성이 있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융합미술치료학박사’ 학위종별을 삭제하는 이유를 문의하다.
- (19) 간사는 미술치료학 석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운영 중이며,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에서 운영하던 세부전공 박사과정만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20) 김정권 평의원이 남아 있는 수료생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다.
- (21) 간사는 경과조치로 수료생의 학위종별은 융합미술치료학박사로 적용한다고 답변하다.
- (22) 민병원 평의원은 학칙 제40조 제4항 생리공결 규정과 관련하여 출석 인정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결석한 수업을 보충해 주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다.
- (23) 간사가 해당 규정은 결석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고 수업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답변하다.
- (24) 문혜성 평의원은 생리공결 인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다.
- (25) 의장은 타 대학 사례 조사를 해보았는지 질문하다.



- (26) 박서림 평의원은 한 달에 1일~3일까지 인정 횟수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한다.
- (27) 문혜성 평의원은 교수의 관리 수월성 및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28) 박서림 평의원은 생리공결제 악용에 관해서는 학생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학생들도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단순히 수업을 듣기 싫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학교에서 생리공결제의 기준, 시행 횟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29) 기획팀장이 생리공결제는 교육기획팀에서 발의한 규정으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학칙에 넣기보다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30) 의장은 생리공결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건의하고, 문혜성 평의원이 동의하다.
- (31) 오숙환 평의원은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 졸업생을 위한 박사 학위 개설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어 만들어졌던 융합미술치료학박사 폐지가 안타까우며, 세부전공 폐지 시 전공자인 교육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담당 교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또한 융합미술치료학박사 과정은 신설 시에는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에 전임 교원이 두 명 있었으나, 현재는 전임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32) 의장은 전공 신설과 폐지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다.
- (33) 민병원 평의원은 학칙 제26조 제4항과 관련하여 창업으로 인한 휴학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창업을 할 경우의 성공률에 의구심이 있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34) 의장은 학생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 (35) 김정권 평의원은 휴학 기간을 누적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휴학 기간 연장으로 학생들의 창업 기회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 (36) 기획팀장은 현재 학생 창업팀에서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으로 발의된 개정안이며, 창업 휴학인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고 발언하다.
- (37) 문혜성 평의원은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으로 두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서조항으로 ‘추가 연장은 시행세칙에 따른다’라고 하자고 건의하다.
- (38) 간사는 해당 규정이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자동으로 휴학이 되지 않고,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39) 의장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이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결하다.

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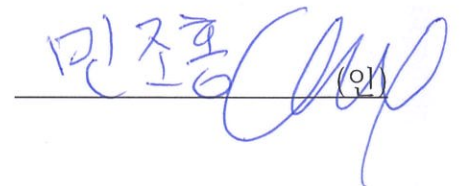
- (1) 의장은 제8기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년(학생) 또는 2년의 임기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
- (2) 박서림 평의원은 임기를 마치며 학생 위원으로서 교수 평의원이 많은 현재 대학평의원회 인원 구성 변경, 학생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 발언 의사를 표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하는 진행 방식 도입 등을 건의하다.
- (3) 문혜성 평의원은 향후 의료원 예산안 자료에 전년도 결산자료 추가를 요청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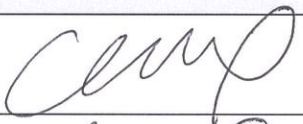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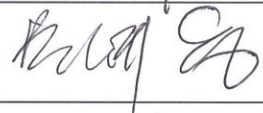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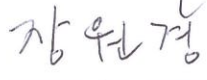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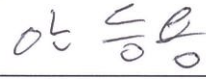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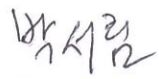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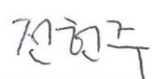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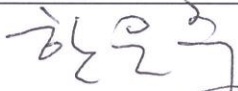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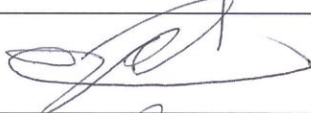
2024년 12월 30일

의 장 민 조 홍

 (인)

## 대학평의원회 2024년 제6차 회의

일시	2024. 12. 30.(월) 15: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 자문 2.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민조홍	
교수 평의원	문혜성	
교수 평의원	장원경	
교수 평의원	민병원	
직원 평의원	안등용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박서림	
학생 평의원	전현주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한은주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